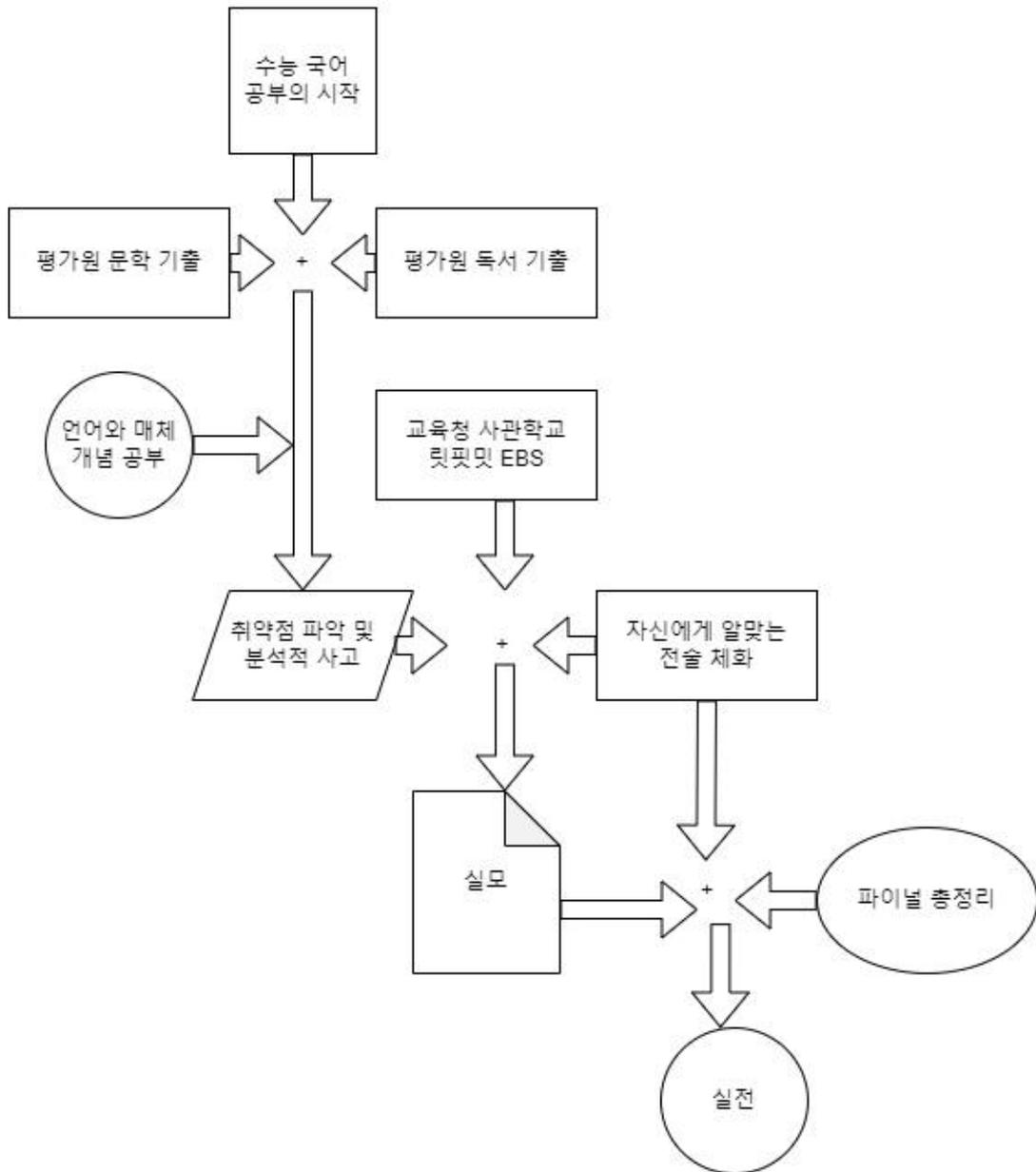


**2024 수능 국어 영역 Guide Book**  
**NEMESIS**  
**Project ILLUSION BBB.Lab**

2024 수능 국어 공부의 흐름도



## Theme 1. 수능 국어 공부의 시작

수능 국어는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수십일을 감금당하며 만드는 지문과 문항을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수능 국어에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은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출제 방향-

위와 같이 **이해력과 지식,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해력**은 낯설고 어려운 지문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

**지식**은 평소에 학생이 쌓은 배경지식을

**창의적 사고**는 지문을 읽고 추론을 통해 문항을 풀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수능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하며 지낸 분들이 만드는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고3 수준의 학생 지식과 출제진이 생각하는 지식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사가 검토진으로 들어가 난이도 조정을 거치지만 분명히 교수의 눈높이와 학생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실전(필자는 수능을 고사장에서 직접 현장 응시하는 경우만을 칭함)에서 평소 익숙히 풀던 기출, 실모 느낌이 나지 않은 이유는 당해연도 출제진들은 기출 소재를 중복하지 않으며, 실모의 출제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년간 학문을 연마하고 문항 출제를 하신 평가원 출제진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지식은 학생마다 계열마다 성향마다 차이가 심할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모랑 6/9평을 잘봐도 실전을 망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필자는 위 페이지에서 사진으로 첨부한 수능 국어 공부의 흐름도를 평가원이 원하는 **이해력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 Theme 2. 이해력

먼저 이해력을 키우려면 언어의 특성상 절대적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기출분석 강의는 누구를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필자는 수능 국어 하나만큼은 이원준 선생님의 현강을 종강까지 함께하였지만, 이원준 선생님의 기출분석강좌인 브레인크래커에서 사용하는 스키마를 실전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국어의 가장 포인트는 **자신만의 독해법**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출분석강좌로 메가 대성 현강 강사 누구든 수능 국어를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분들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지만, 본인만의 독해법과 전략을 만들어 체화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의를 들은 후 기출문제집을 풀때는

1차로 정해진 시간을 재고 풉니다.

강사가 교재에 적어놓은 시간이나 국어 모고 1회분이면 정규시간을 재고 일단 풀어봅니다.

2차로 채점하기 전에 분석을 합시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뭐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점을 잘 체크 합시다. 다만, 이때 해설지와 정답지를 보시면 안됩니다.

3차로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통해 복습합시다.

본인이 2차 분석때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만약 1차때 3번이라 답을 택했는데 2차 분석 당시 5번으로 바꿨는데 맞거나 틀리면 왜 그렇게 됐는지 꼼꼼히 생각해봅시다.

총 3차의 과정을 거치며 겨울~봄동안 평가원 기출 문제를 푸시면 베스트입니다.

위는 독서 문제에서 효과가 확실하며, 문학의 경우 문학개념어 강의를 들은 후 최대한 빠르게 선지를 털어내는 연습을 합시다.

언매도 개념 강의를 병행해주심 됩니다.

문학과 언매는 시간 절약의 영역이지만 독서는 절대로 시간 절약의 영역이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하면서 공부 시간 배분을 해주세요.

과거의 평가원 독서는 지문에 힘을 많이 주어 분량도 길고 정보량도 많아 이해하긴 어렵지만 막상 문항은 눈알굴리기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반대로 지문은 비교적 이해가 잘되면 문항에서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Theme 3. 창의적 사고

평가원 독서 문학 기출 분석과 선택 공부를 하신 상태면 늦봄 일 겁니다.

6평이 얼마 안남았죠. 이때는 본인이 기출분석한 것을 곱씹으며 취약 파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경제가 약해 나는 과학기술이 약해.” 이런 것이 아닌,  
“나는 인문 지문에서 낯선 개념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를 설명하는 지문이 어려워.”

“나는 사회학 지문에서 보기 문항 중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 어려워.”

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기출분석시즌 때 들은 강의에서 말한 독해법과 문풀 스킬 등을 자신의 취약파트를 용이하게 풀 수 있도록 조금씩 변형하고 체화하는겁니다.

“경제 지문에서 개념간 수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나오면 비례 반비례 관계와 상수와 변수 관계를 잘 파악해야지.”

“낯선 개념의 정보량이 많으면 일단은 전체 문맥과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처럼 강사의 스킬을 자신만의 독해법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이후 위와 같은 독해법을 교육청 사관 릿핏밋과 같은 어려운 비기출 지문이나 엔제를 풀면서 몸에 익히면 됩니다.

## Theme 4. 실모와 파이널

이제 파이널이 다가오면 이감, 상상, 강K... 등등 많은 실모가 쏟아질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모는 실모일 뿐입니다.

실모의 가장 큰 장점은 낯설고 어려운 지문을 실전처럼 연습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실모는 실전의 현장감을 절대로 똑같이 못살리므로 문제를 지엽적(혹은 사설틱 혹은 더럽게)으로 출제하여 제시간에 다 못 풀도록 설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실모는 단순히 모래주머니지 그것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다만 오답 및 해설은 언제나 철저히 기출분석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이널은 내가 지금까지 푼 기출 비기출 전부다 총정리를 하시고 EBS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전은 1년에 단 하루이기에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총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Theme 5. 당부말씀

수능 국어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알맞은 독해법을 찾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그 찾는 과정은 여러분의 언어능력이나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노력하면 찾아옵니다.

추가로 BBB 겨울방학 국어 특강 클로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BB 오픈프로필에 갠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